



금주편언

저자 (Authors)	도원의
출처 (Source)	신학지남 8(2) , 1926.1, 165–167 (3 pages)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2) , 1926.1, 165–167 (3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학지남사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logical Seminar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30999
APA Style	도원의 (1926). 금주편언. 신학지남, 8(2), 165–167.
이용정보 (Accessed)	경성대학교 210.110.162.*** 2018/07/18 18:0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 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禁酒片言

救世新聞禁酒號轉載

偉人의 의견담
파거와 현지

書記長官 都源儀正領

神學指掌 南

603

일반사회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원인은 술이다. 본래 원인도 술이다. 혼자가 데는 고가족들이 산지 소방으로 훗터졌다.는 말을 듣고 그 원인을 무르며 술이라니 담하고 더라 교수단에서 소형을 밟는 적인에게 그려 훈범죄의 원인을 무르며 술도 그리 되었다. 담 혼다. 그리 해야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술을 아조는지 아니 해나 해고 미우이 상호에게 성각을 었다. (이이란교회의 대감독)

음주와 낫분 습관의 줄이 심히 가늘 때에 문화를 리지 안 코 굽어 서문에 럼게 될 때 서지 내여 브리두는 일 이 흔한데 우리나라의 범죄 건의 구 활은 그 원인이 적접술에 있도다.

(저판장호진쓰)

술은 하느님과 끊치고 살고 천명하고 땅구한 사람을 비천하 게 만들고 범죄를 끊게 해

604

눈데 이 세상 사람을 비열케 만들며 모든 악을 험케 만드는 것은 술과 그 혼것이 염려 줄 노
조각 흉으로 나는 죽는 날까지 그대의 혼무리를 사용해 야 술을 거스려 싸호기로 결심해
노라 (요한·제루)

술은 세 가지 결과를 내는 데 첫째는 오락이 오둘째는 취하는 것이 오셋째는 근심이 티다
(아나카리스)

神學

오—나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다 만일에 내가 이 세상에 뛰어 들어 알면 알 흥이 업스면 마귀라
고부르자 (쇠시피어)

指

이 세상 모든 짜악이 드러서도 술과 그치만 혼사람을 막히거나 벤궁을 일우 위로 치 못하
는 도다 (꽁자웨 콘)

南

내가 본 모든 국가 중에도 시와 혼락을 물론하고 술진정이 만 혼데와 그치 비찰흔데 본정도

다 (콜드스미드)

술은 근데 전정에서 소용해 는신발 떠는 혼군자 보다 사람을 더 만히 죽이 는도다 (꽁자웨
리술리)

운동 가가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기 개되라고 술을 산는 도다 장수해 라 면 술을 산혀야

헬거 손류계 표가 종종 있는데다 (파울리, 크리푸스)

술은 교육을 보급하는데 관장의 물이 되는 데다 (요한 빅터 엣트)

제판소에서 슈리히는 수건에 심부의 주는 그 범례원이 일제히는 데 엣도나 (제판
장 샐빌)

술은 무서운 독물이라 팔과 뇌와 심장으로 헤엄 못쓰게 해 머정신의 예민과 감각이다 술
노인 야 쇠약해 되는 데다 (의학박사 마쉬)

이 세상에 데일 가는 미혹적 위험성을 가진 것도 술이 오정면들을 망쳐 해고 죽이는 것도
독호술이로다 (안드루·카너지)

